

광주 일식집 “회 실명제 실시하자”

수산물 파동 여파 업소 잇단 휴폐업에 지구책 마련

국내산 표시 구체화·정부 대책 촉구 등 신뢰회복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누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일식집(회집, 참치집 포함)이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 파동’의 파고를 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업주들도 원산지 표시 구체화, 회 실명제 등 지구책을 통한 신뢰회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외식업계 등에 따르면 광주 지역에 현재 영업중인 일식집은 400여개로 지난해 430여곳서 30여개가 줄었다. 영업중인 곳 역시 매출이 줄어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해야 할 상

황이며 특히 참치 전문점의 경우 원전사고 이후 개점 휴업 상태라 할 정도로 손님이 끊겼다.

업주들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과 경남의 경우 정부와 유통업체가 나서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고, 수산물 소비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광주와 전남은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 당국과 유통업체의 시식회와 캠페인은 보여주기 식이고 안정해 오히려 시민들의 막연한 불

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어렵게 종사자들과 연계해 수산물의 안전성을 수치적으로 검증, 체계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동구에서 회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모씨는 “수산물 소비가 줄고 있는 상황을 언론이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은 불안감만 조성할 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일본 원전 사고 이후 밀어닥친 ‘수산물 파동’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영업 전략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주목을 끈 사례는 회 점시에 회갑 이름을 밝히는 ‘회 실명제’. 부산 용마회집은 손님들이 회갑의 종류를 알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회 점시에 회갑 이름을 적은 꽃말을 꽃아 안

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해 호평을 얻었다.

광주 상무지구에서 회집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우리 가게의 거의 모든 생선은 국내산이어서 원산지 표시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사고 이후 손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더욱 철저히 하고 있다”며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린 언론 보도를 붙이는 등 고객을 안심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식집 대표 역시 “회갑과 각종 해산물 재료로 매일 아침 직접 수산업체를 찾아 신선도를 꼼꼼하게 체크한 뒤 구입하고 있다”며 “물가가 올라도 부 요리의 질을 고급으로 유지하고 가치수를 줄이지 않는 공격적 전략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은행은 20일 오전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창립 4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김장학 광주은행장은 임직원들에게 ‘지역과 함께 웃는 든든한 은행’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광주은행 제공>

“지역과 함께 웃는 든든한 은행 만들것”

광주은행 창립 45주년 기념식

창립 45돌을 맞은 광주은행은 20일 오전 광주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김장학 은행장을 비롯한 고객 및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수 고객, 광주은행 선배직원, 광운리더스클럽 회장단 등도 함께 참석해 광주은행의 창립 45주년을 축하했다.

기념식은 우수 직원 표창장 수여식과 광주은행의 지난 45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지역민들의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임직원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함께 각 부문에서 선정한 광주은행 우수 고객 11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광주은행은 화가가 그리고 도예작가가 판매기획전, 대학입시설명회, 낙도 어린이 초청행사 등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김장학 은행장은 “지난 45년간 광주은행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민들과 고객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 덕분이다.”라며 지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또한, 광주은행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금융 ▲고객 최우선 마인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내부 역량강화 등을 임직원들에게 당부하며, “지역과 함께 웃는 든든한 은행”을 함께 만들어 나가

자고 강조했다.

광주은행은 창립 45주년을 맞아 PB고객 투자상품 설명회, 소호명가 판매기획전, 대학입시설명회, 낙도 어린이 초청행사 등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1968년 11월 20일, 자본금 1억5000만원, 점포 1개, 직원 50명으로 출발해 어느덧 불혹의 나이를 훌쩍 넘겼다.

광주은행은 그 동안 광주 전남 지역민의 사랑과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현재 150여개 지점망을 갖추고 1,700여 임직원이 일하는 총 자산 22조원 규모의 든든한 초우량 지역은행으로 성장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추위엔 양털 귀마개 최고

20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보온성이 뛰어난 양털 귀마개가 선보여 인기를 얻고 있다.

연일 추위가 계속되면서 방한용품 찾는 고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NC 광주역점’ 내일 오픈

이랜드리테일, 기존 브랜드 80% 교체

옛 현대백화점 광주점을 인수, 간판을 바꾸고 영업을 시작한 NC 백화점 광주점이 6개월간의 대대적인 리뉴얼 공사를 마치고 22일 새롭게 오픈한다. 이랜드 NC 백화점 광주점에서 ‘NC 광주역점’으로 바꿨다.

20일 이랜드리테일은 NC 광주역점은 기존에 운영하던 브랜드의 80% 이상을 새롭게 교체, 총 187개의 브랜드를 입점시켰으며 여성 전문관과 아동전문관을 선보이는 등 층별 구성을 완전히 바꾸고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SPA매장과 라이프 스타일샵 모던하우스 등 대형 편집샵을 입점시키고 패밀리 레스토랑 애슬리 등 전문 식당관을 강화해 기존의 40~50대 고객은 물론, 20~

30대 신규 고객층까지 끌어들이기 위한 쇼공간을 선보인다.

층별로는 1층 패션잡화, 2층 영캐주얼·재화점관, 3층 여성전문관, 4층 캐주얼 전문관, 5층 남성·골프전문관, 6층 아웃도어·스포츠전문관, 7층 아동·유아전문관, 8층 모던하우스, 9층 전문식당관·애슬리, 10층 고객서비스센터·문화센터로 구성했다. 이밖에 지하 1층 식품관은 자매입 및 친환경 전문 프리미엄 식품매장으로 운영된다.

한편 오는 24일까지 3일간 구매금액별로 2단 런치박스, 머그컵 세트 등 선물을 제공하고 KB, 광주은행, 롯데카드, 현대카드로 결제시 사은품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과 풍년... 가격 15% 하락

올해 사과 출하량이 늘면서 작년보다 가격이 15% 이상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 따르면 지난 1~18일 후지 품종의 사과(15kg 들이 한 상자) 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4% 하락한 3만8851원에 거래됐다. 작년에는 4만6454원

이었다.

업계는 가격 하락 원인을 올해 태풍이 없어 출하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농업관측센터는 이달 후지 품종의 출하량을 작년보다 5.2% 증가한 3만8000t, 12월은 3.2% 증가한 3만800t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여름 폭염에... 계란 가격 고공행진

도매가 10개 기준 51% 올라

산란율 평년보다 5% 떨어져

지난여름 폭염 등으로 계란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20일 유통업체와 한국양계농협 등에 따르면 11월 현재 경기지역의 계란 도매가격(이하 특란 10개 기준)은 1600원으로 지난해 11월의 1058원보다 51% 오른 상태다.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전년보다 3.7% 가량 컸던 계란 가격은 7~8월 불

별더위로 산란계가 폐사하고 산란율이 떨어지면서 급등하기 시작했다.

국내 산란계 수는 6100만~6300만 마리 수준을 유지해왔는데, 이 가운데 3%인 200만 마리가 지난여름 폭염으로 폐사했고, 산란율도 평년대비 5% 가량 떨어졌다.

이 때문에 경기 지역 계란 도매가격은 7~8월의 경우 작년보다 62% 비싼 1478원을 나타냈고, 9월 들어서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 비싼 1663원에 달했다. 여기에 일본 방사능 공포로 수산물

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생선을 대체할 계란 등 음식재료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걀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란계 수가 평년 수준을 회복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려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란 값 감세가 지속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계란 가격 강세 속에 이마트는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로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계란을 할인 판매한다.

양계 농장과 직거래 등을 통해 양란(특란 30개) 가격을 35% 저렴한 4850원에 판매한다. 판매 물량도 평소의 15배 정도로 늘린다. /연합뉴스

TV 조선

‘만’가지 알찬정보와 ‘물’만난 살림꾼들의 ‘장’ 상초월 비법!

살림9단의 만물상

매주 일요일 밤 11시 MC김원희 | 안문숙 이광기 김한석 김민희

이 프로그램은 www.tvchosun.com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